

2019년 8월 23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파로 혼조 마감 에스더 조지, 패트릭 하커, 로버트 카플란 총재 9월 금리 동결 주장

### 미 증시 변화: 경기 침체 우려 완화 Vs. 연준의 금리 동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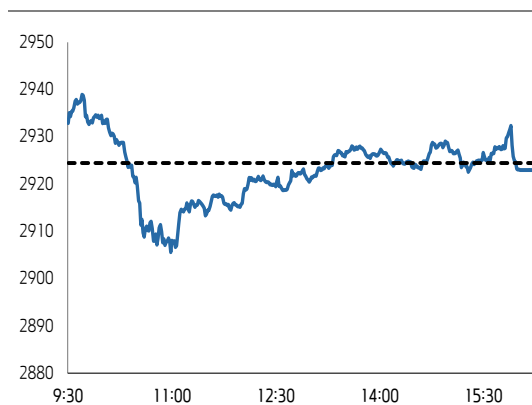
미 증시는 양호한 소매업종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ECB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와 개선된 유럽 제조업지표 발표도 상승 요인.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금리동결을 언급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대형 기술주 및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 주도. 다만, 경기침체 우려 완화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며 소매업종과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자 재차 상승 전환하는 등 혼조 마감(다우 +0.19%, 나스닥 -0.36%, S&P500 -0.05%, 러셀 2000 -0.25%)

미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금리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등락. 장 초반 상승 출발 요인은 미국 소매업종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따른 소비의 견고함을 기반으로 한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슈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영향을 주며 강세.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조업 PMI가 개선된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음.

그러나 미 증시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현재 중립금리 상태라 금리인하는 불필요” 하다고 주장하자 하락 전환. 최근 제임스 블라드 총재와 에릭 로젠그렌 총재에 이어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10명의 위원들 중 세 번째로 금리 동결을 주장. 또한 내년 의결권을 가지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더불어 로버트 카플란 총재도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등 연준 위원들이 9월 FOMC에서 금리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 이 여파로 CME의 FEDWatch에서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9%까지 상승. 그러자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23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연설 내용이 시장 기대와 달리 지난 7월 31일 기자회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매물 출회

결국 미 증시는 장 초반 상승 출발 했으나, 연준의 덜 비둘기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 매물 출회.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음. 그러나 장 마감 직전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재차 역전되자 상승 전환했던 S&P500이 하락전환 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투자심리는 위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951.01	-0.69	홍콩항셱	26,048.72	-0.84
KOSDAQ	612.25	-0.60	영국	7,128.18	-1.05
DOW	26,252.24	+0.19	독일	11,747.04	-0.47
NASDAQ	7,991.39	-0.36	프랑스	5,388.25	-0.87
S&P 500	2,922.95	-0.05	스페인	8,716.40	+0.17
상하이종합	2,883.44	+0.11	그리스	845.22	+1.50
일본	20,628.01	+0.05	이탈리아	20,816.99	-0.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강세

노드스트롬(+15.86%)과 디 스포칭(+3.58%) 등 소매 업종은 양호한 실적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이에 힘입어 콜스(+0.57%), 메이시스(+1.17%), 타겟(+3.22%), 갭(+4.66%) 등 여타 소매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L브랜드(-3.49%)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부진했다. JP모건(+1.03%), 씨티그룹(+1.04%), BOA(+0.97%), 웰스파고(+1.38%) 등 금융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등 우려가 높아 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양호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상승했다. 알렉시온 파마(+7.53%)는 M&A 이슈가 부각되자 급등 했다.

마이크론(+1.38%)은 최근 메모리 가격의 개선이 이어지자 RBC가 지속적인 메모리 가격 개선에 따른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마이크로칩 테크(+0.63%), 퀄컴(+0.59%) 등도 상승했다. 다만,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매물이 출회된 인텔(-0.79%) 등의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21%	대형 가치주 ETF(IVE)	+0.08%
에너지섹터 ETF(OIH)	-0.69%	중형 가치주 ETF(IWS)	+0.10%
소매업체 ETF(XRT)	+1.57%	소형 가치주 ETF(IWN)	-0.07%
금융섹터 ETF(XLF)	+0.68%	대형 성장주 ETF(VUG)	-0.13%
기술섹터 ETF(XLK)	-0.24%	중형 성장주 ETF(IWP)	-0.1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5%	소형 성장주 ETF(IWO)	-0.36%
인터넷업체 ETF(FDN)	-0.37%	배당주 ETF(DVY)	+0.27%
리츠업체 ETF(XLRE)	+0.4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4%
주택건설업체 ETF(XHB)	+0.1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9%
바이오섹터 ETF(IBB)	-0.82%	미국 국채 ETF(IEF)	-0.22%
헬스케어 ETF(XLV)	-0.49%	하이일드 ETF(JNK)	+0.19%
곡물 ETF(DBA)	+0.33%	물가연동채 ETF(TIP)	-0.09%
반도체 ETF(SMH)	-0.13%	Long/short ETF(BTAL)	+0.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5.02	-0.48%	+2.63%	-8.36%
소재	352.12	-0.70%	+1.12%	-4.82%
산업재	631.18	+0.14%	+3.03%	-4.70%
경기소비재	942.34	-0.06%	+4.08%	-3.42%
필수소비재	621.65	+0.43%	+1.62%	+1.30%
헬스케어	1,049.81	-0.49%	+1.58%	-1.00%
금융	443.07	+0.62%	+2.52%	-6.01%
IT	1,397.29	-0.26%	+3.86%	-3.05%
커뮤니케이션	165.36	-0.17%	+1.80%	-1.34%
유틸리티	313.82	+0.07%	+1.62%	+3.54%
부동산	241.27	+0.43%	+1.65%	+5.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파월 의장 발언 주시하며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2% MSCI 신흥 지수 ETF 는 1.29%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812 계약 순매수 했으나 1.00pt 하락한 255.4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09.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지수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힘입어 장중 하락을 뒤로 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더불어 ECB 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을 함께 실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우호적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된 점은 부담이다. 특히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10 명의 위원들 중 3 명이 9 월 금리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신흥국 환율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미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증시가 부진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행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ECB 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동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 매매 행태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3 일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는 점은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 증시 마감을 앞두고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재차 역전된 점도 부담이다. 이를 감안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 오늘 주식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관련 이슈가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쳤기에 관련 이슈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 PMI 기준선 하회

8 월 독일 제조업 PMI 는 전월(43.2)이나 예상치(43.0) 보다 개선된 43.6 으로 발표되었다. 프랑스 제조업 PMI 또한 전월(49.7) 보다 개선된 51.0 으로 개선 되는 등 유로존 PMI 는 개선되었다.

8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50.4) 보다 부진한 49.9 로 발표되며 기준선인 50.0 을 10 년만에 하회했다.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여파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장단기 금리 역전 발생

국제유가는 양호한 유럽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PMI 가 10 년만에 기준선인 50.0 을 하회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미국내 제조업 업체들의 부진이 지표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여파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매물 출회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제조업 PMI 가 10 년만에 기준선을 하회했으나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연준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 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변화폭은 제한되었다. 더불어 ECB 가 금리인하와 자산매입 등 정책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유로존 제조업지표 개선에 힘입어 폭은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의결권을 가진 10 명의 위원들 중 블라드, 로젠그렌 총재에 이어 에스더조지 총재도 금리동결을 주장하자 상승 했다. 여기에 내년 의결권을 가지는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금리동결을 언급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단기물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장단기금리차가 역전되었다. CME 의 FEDWatch 는 9 월 금리동결 확률을 9%로 제시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여파로 부진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1%, 철근도 0.8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35	-0.59	+1.71	Dollar Index	98.212	-0.08	+0.07
브렌트유	59.92	-0.63	+2.90	EUR/USD	1.108	-0.05	-0.24
금	1,508.50	-0.48	-1.48	USD/JPY	106.44	-0.17	+0.30
은	17.178	-0.65	-1.01	GBP/USD	1.2251	+1.00	+1.35
알루미늄	1,766.00	-0.73	-0.90	USD/CHF	0.9837	+0.18	+0.74
전기동	5,683.00	-0.85	-1.18	AUD/USD	0.6757	-0.35	-0.27
아연	2,245.00	-1.92	-0.84	USD/CAD	1.3303	+0.09	-0.08
옥수수	371.00	+0.20	0.00	USD/BRL	4.0717	+1.08	+1.98
밀	471.75	+0.80	-0.58	USD/CNH	7.0894	+0.31	+0.57
대두	868.75	-0.49	-0.23	USD/KRW	1207.40	+0.41	-0.44
커피	97.30	+0.67	-0.71	USD/KRW NDF 1M	1209.55	+0.65	-0.24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613	+2.38	+8.62	스페인	0.137	+4.30	+10.60
한국	1.230	-5.00	+0.50	포르투갈	0.167	+4.00	+10.20
일본	-0.236	0.00	-0.30	그리스	1.950	-2.90	-5.20
독일	-0.644	+2.60	+6.90	이탈리아	1.304	-2.60	-2.60